

근기요산회 3월 정기산행 서울 개포동의 大母山 올라



▲ 대모산 주봉 부근의 식회에서 권영익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모산 주봉 정상의 회원들.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가 3월의 정기산행으로 세 번째 토요일인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大母山을 올라갔다. 이날 오전 10시 수도권 전철 3호선 수서역 4번출구에서 집결한 30여회원이 이곳의 등산로 중 가장 긴 능선길을 택하여 올라 등반을

시작하였다. 이날 산행에는 회원들이 다른 행사 등에 분산되어 평상시보다 참여인원이 적었다. 등반 행렬은 능선바지를 오르고 난 고비마다에서 쉬어가며 11시 반을 조금 넘어 정상에 가까이 다가서 보이는 데 이르러 식회를 하고 점심을 먹

으며 막걸리잔을 나누었다. 점심과 연음을 마치고는 오후 1시 가까이 되어 하산그룹과 계속 등반그룹으로 나뉘었다. 대모산大母山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그 정상이 속해 있지만 수서동과 일원동·개포동·포이동 사이에 솟은 도시의 근린공원과 같은 육산肉山이다. 연접하여 능선으로 뻗어 오르는 구룡산九龍山까지 치면 강남구의 자곡동과 세곡동 및 서초구 내곡동·염곡동에 걸쳐 있다. 대모산은 원래 산모양이 늙은 할미와 같다고 하여 ‘할미산’으로 불렸는데 조선조 3대 태종太宗의 능침을 그 남쪽 기슭 현릉獻陵에 들이면서 왕명으로 대모산이라 고쳤다고 한다. 일설에는 그 산모양이 여승女僧이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하고 구룡산과 더불어 여인의 봉긋한 앞가슴을 닮았다 하여 대모산으로 불린다는 말도 있다. 이 산은 육산, 즉 토산土山으로서 물을 많이 지니는 산이라 이곳저곳에 약수터가 많다. 태종의 능을 여기에 들인 뒤로 태종우太宗雨라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설도 있다. 이처럼 대모산에 물이 많아선지 세종世宗의 영릉英陵을 들였더니 습기가 많아 예종睿宗 때는 이를 여주로 천장하게 되었으며, 세종 다음의 문종文宗도 생시에 부왕 세종의 영릉이 있던 대모산에 자기의 능침을 정하고자 했으나 물이 많다고 하여 신하들이 반대하여 구리의 동구릉東九陵으로 능소가 정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물이 많은 대모산은 또한 음기陰氣가 많아 음택陰宅으로는 제격이라는 설도 있다. 그래서인지 뒤에 조선말 순조純祖의 인릉仁陵이 현릉 동쪽에 들기도 하였다. 해발 292미터의 대모산은 평

야지대에 있어 전망이 매우 멀리까지 펼쳐지므로 그 경관이 드넓고 아름답다. 대모산 병풍바위쪽에서 맞은편을 보면 비슷한 높이이나 해발 306미터로 대모산보다 15미터쯤 높은 구룡산 정상이 보인다. 대모산 정상에서 구룡산까지는 주능선을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면 도달할 수가 있다. 그 정상 가까이 가면 대모산 정상 오르막 때와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야 하며 정상에 오르면 헬기장이 나타나면서 원경으로 관악산·우면山牛眠山·청계산을 바라볼 수 있다. 구룡산은 옛적 임신한 여인이 용 열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한 마리가 떨어져 죽고 아홉 마리만 승천하여 구룡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구룡산에도 대모산과 같이 소나무와 참나무 외에 밤나무·신갈나무·현사시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희귀한 물박달나무가 자라고 있다. 구룡산을 전에는 국수봉國守峰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다. 나라를 지키는 봉우리의 뜻이다. 대모산에서 구룡산으로 이르는 능선은 자연의 산성처럼 된 자취가 있다. 그리고 두 봉우리 정상에도 산성의 흔적같은 석축이 있다. 이것이 조선시대 축성법으로 쌓은 흔적은 아니어서 고대 삼한이나 삼국시대에 있었던 오랜 산성의 흔적은 아닌가 의심하는 소리도 있다. 대모산과 구룡산은 같은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주 등산로는 동쪽에서는 수서역이나 일원역에서 시작해 오르면 되고 서쪽에서는 염곡동에서 오르면 된다. 남쪽에서는 현인릉에서 오르는 길이 있고 북쪽에서는 개포동이나 포이동에서



격려에 감사합니다

3월 14일 안동권씨창수공중중(회장 權泰奉)에서 5만원을 협찬하여주시었습니다.

오르는 길이 있는데 비교적 등하산로가 발달되어 있다.
<사진 權容根·글 權五焄>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4·6배판 1630면에 집성된시조태사공의특성이전김알지大輔公이래천년과특성이후천년의榮辱과국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등 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 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

이 책의 판매수익금은 한글판 安東權氏大同譜 전산판 운영비에 투입되어 확대재생산됩니다. 별책으로 함께 포장된 96면 정가 48,000원의 六禮이야기는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입니다.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